

고령 지산동고분군 출토 철제농구에 대한 연구

- 석곽묘를 중심으로 -

강 석 범*

<목 차>

- I. 머리말
- II. 지산동고분군 개요
- III. 철제농구의 검토
- IV. 철제농구의 부장배경
- V. 맺음말

국문요약

고대에 있어서 철이라는 소재는 일반적으로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사회변동의 동인(動因) 중 하나로 큰 역할을 해왔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철을 소재로 제작된 농구 중 대가야의 중심지로 생각되는 고령 지산동고분군 자료를 대상으로 그 부장양상을 검토하고 기존연구에서 대가야권역에서만 확인되는 축소모형농구의 부장현상을 살피고자 한다. 자료의 검토 결과 지산동고분군의 철제농구 부장은 대가야권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듯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축소모형농구가 다량 부장되고 있다. 일반농구와는 다른 인식하에 제작되고 부장된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백제 지역과 관련한 전통적인 부장습속으로 5세기 중엽을 전후로 대가야 세력의 팽창과 관련해 발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가야가 활발히 세력을 확대해나갔던 5세기 중엽 집중적으로 부장되는 축소모형농구는 6세기 중엽 신라에 의한 병합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 그 명맥은 유지되었다.

주제어 : 지산동고분군, 농구부장양상, 철제농구, 축소모형농구, 대가야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철제농구(鐵製農具)는 고대사회에 있어 농업생산과 함께 정치체의 형성과 발전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무구나 토기와는 달리 실제 생산환경에 적합해야 하므로 당시 각 지역별 자연환경과 사회가 다른 만큼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농구는 부장품으로써도 고대사회에 있어 특수한 의미와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철제농구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단순히 주요 유물의 해석에 있어 부가적인 언급만 있어왔다. 그러나 90년대 초 이후로 관련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철제농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차츰 이루어지게 된다. 문헌사적 접근의 연구와 고고학적 접근의 연구로 대별될 수 있는 철제농구의 연구에서 먼저 경제사 혹은 문헌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현기옥**의 논문¹⁾을 들 수 있는데, 그는 3~4세기를 중심으로 철제농기구의 발달상황을 설명하고 철제농기구의 보급이 사회계층분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농경과 관련한 제방의 축조, 개축 등의 수전개발과 관련되는 문헌기록을 통해 농업생산력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현혜**의 연구²⁾에서는 4~5세기에 있어서의 철제농기구 출토상태를 통해 농구의 보급과 소유를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정치·사회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상기의 두 연구는 문헌사를 통한 고대의 경제생활과 사회발달의 설명에 이전에 주목받지 못한 철제농구를 그 자료로 끌어옴으로 철제농구에 대한 연구를 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문헌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고고학 자료인 철제농구의 특성이나 부장상황 등을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철제농구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은 고고학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이 중 **김도현**의 논문³⁾에서는 부산·김해 지역을 대상으로 철제농구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와 함께 철제농구의 형식 분류를 행하고 있다. 또한 철제농구 중 철검과 단조철부를 중심으로 한 유물의 부장양상을 통해 당시 사회계층화와 변화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부장농구를 통해 당시의 경제형태를 검토했다. **홍보식**⁴⁾은 농기구 구성과 부장유형을 크게 기원전 1세

1) 현기옥, 「3~4세기를 중심으로 한 삼국의 철제 농기구 발전과 농업의 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1.

2) 이현혜, 「삼국시대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4~5세기 신라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회』 제8호, 한국상고사학회, 1991.

3) 김도현, 「고대의 철제 농구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1.

기~기원후 2세기 전반, 2세기 후반~3세기 전반, 3세기 후반~4세기대로 나누어 각 시기에 나타나는 농기구 변화를 설명하는데, 농기구의 부장차이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지위와 차별을 반영하고 농기구의 조성변화는 농업형태의 변화발전과 상통한다고 생각하였다. 李東冠·保元良美·小嶋篤·武末純⁴⁾은 최근 한반도와 일본의 철제농구 중 따비와 살포를 중심으로 그 형태와 특징을 비교 검토하였다. 4세기 이후의 따비의 경우 그 출토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다른 철제농구에 의한 기능 대체로 보기 보다는 농구가 축소화 되고 실용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여기서 대가야 지역의 축소모형농구와 그 성격을 달리한 소형철기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각 형식의 전개과정을 살폈다. 그리고 대가야지역의 특징적인 부장품인 축소모형농구를 다른 안순천의 논문⁶⁾은 축소모형농구⁷⁾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존의 미니어쳐철기, 모형철기 등으로 불리는 대가야의 작은 철기를 철제축소모형농구로 명명하고 유물의 분포권을 상정하여 이를 5~6세기대 대가야 지역만의 독특한 부장 습속으로 추정하여 그 유물이 갖는 계층적 성격과 계층성에 주목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농구의 기능과 분류는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이해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료와 연구 부족으로 문제점이 남아있다. 또한 안순천이 말하는 축소모형농구의 계층성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순히 축소모형농구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실제 연구대상이 되는 지산동고분에서 축소모형농구 뿐만 아닌 일반농구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양상을 알기 위해서 축소모형농구의 원형이 될 수도 있는 일반농구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가야지역인 지산동고분군의 철제농구를 대상으로 부장 의미를 살펴보고 철제농구 부장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계층적 분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4) 홍보식, 「농기구와 부장유형-영남지역의 2세기 후반~4세기대 분묘 부장품을 대상으로」, 『한국고고학보』, 44권, 한국고고학회, 2001.

5) 李東冠·保元良美·小嶋篤·武末純, 「彌生·古墳時代の韓·日 鐵製農具 研究 - 따비와 살포를 중심으로 -」, 『한·일 교류의 고고학』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8회 합동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2008.

6) 안순천, 「대가야권역의 축소모형철제농구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7.

7) 일제강점기에 발굴된 지산동 2호분에서부터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에도 고령지역의 발굴조사 결과 다수 확인이 되었으나 연구자에 따라 모형철기, 도끼형철기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최근 고령지산동고분군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다시금 주목받게 되어 활발한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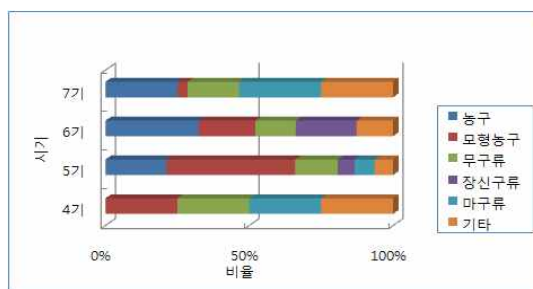
II. 지산동고분군 개요

고령의 지산동에는 주산(主山)에서 남으로 뻗은 주 능선상에 대형고분이 축조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동남쪽으로 몇 개의 산각과 그 사면에 대형(직경 20m 이상)·중형(직경 10m 내외)·소형분(봉토 미확인)으로 구분되어 200여 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쾌빈동고분군, 본관동고분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지산동고분군은 현재도 발굴조사 중에 있지만 대형분에 대한 조사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능선정상부의 고층고분들을 제외한 지금까지 조사된 지산리 464-1번지 및 산 23-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석곽묘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들은 세장방형의 석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심축조시기는 5~6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도·토기류 3, 371점, 금동관과 투구를 비롯한 금속류 1, 604점, 기타 1, 275점 등 총 6, 250여점이 출토되었다. 다수의 철기를 비롯해 금동관, 장신구류의 존재로 당시 대가야지역의 중심지로 인식되어 온 곳이다. 출토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일반농구와 함께 축소모형농구의 비중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소도자를 농구에서 제외한다면 축소모형농구의 절대수량은 전체 철제유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지산동고분군의 축조시기는 대체로 5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것으로 확

표1. 시기별 부장 비율(토기 제외)



8) 본 연구는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사된 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굴조사된 고층고분을 참고로 하여 행하여졌다. 편년에 대해서는 보고자와 관련 연구자들의 편년을 참고하였다. 각 연구자들 절대적인 고분축조연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지산동고분의 상대적 편년은 모든 연구자들 사이에 대체로 큰 차이는 없었다. 이에 지산동고분군 출토 유물의 비교를 통해 편년을 했다. 영남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동고분군』, 2006. <표2>를 정리하면 35호분→32호분→33·34호분→44·45호분의 순서로 축조연대가 비정된다. 35호분의 경우 기대를 포함한 토기를 살펴볼 때 최소 5세기 중엽에서 전엽으로 볼 수 있다.

인되고 있다. 또한 출토유물의 양상에 있어서도 대가야시기에는 수혈식석곽묘에 고령양식의 토기가 부장되고, 신라의 지배 이후부터는 황혈식석실묘에 신라후기 토기가 부장되는 양상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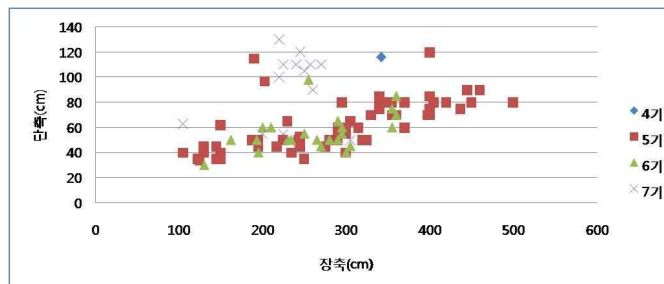
표2. 대가야 고분의 편년표 대비- 표18참고

分期	禹枝南 (1987)	定森秀夫 (1987)	藤井和夫 (1990)	李熙濬 (1995)	朴天秀 (1996)	趙榮濟 (1996)
350	4c 3/4				케빈 1호 옥전 68호	
	4c 4/4				지포 B6-B15-A1호 옥전 23호 방계 3호	-옥전유적-
400	5c 1/4			지산 35호	지산 35호	23,32,37,45, 67-A·B, 68,48,36,38,42,47
	5c 2/4	지산 35호 지산 33호		지산 32호 지산 33호 옥전 M1호 월산 M1-A호	지산 32호 옥전 M2호 옥전 M1호 월산 M1-A호	
450	5c 3/4	지산 32호 지산 34호 지산 35호		옥전 70호 옥전 M3호 만계계 가A호 만계계 다A호	옥전 M3호 백천 1-3호 만계계 가A호 만계계 다A호	M1,M2 11,16,31,41, 81,M1-1,2,3
	5c 4/4	지산 32호 지산 34호	지산 44호 지산 3호	지산 32,34호 지산 44호 지산 41호	옥전 M6호 지산 44호 옥전 M4호 만계계 가B호	
500	6c 1/4	지산 44호 지산 45호	지산 45호 지산 2호 지산 39호	지산 45호 지산 73호 지산 72호 지산 44호	지산 45호 옥전 M4호 옥전 M7호 두락 1호	M3,13,69,70,72,82, 2,7,71,83,87
	6c 2/4	살가 1-A호 살가 2-B호	우산출토	지산 45호 지산 73호 지산 72호 지산 44호	지산 45호 옥전 M10호 살가 1호 봉계 대평분 두락 3호 옥봉 7호	
550	6c 3/4				옥전 M11호 지포 D1-1호 두락 2호 수정봉2호, 옥봉7호	M4,M7,80, 84,85 M6,M10, 78,86,M6-1, M10-2 M11

III. 철제농구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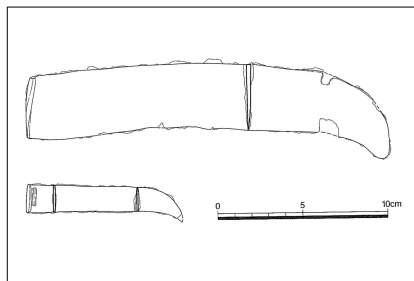
1. 철제농구의 분석과 검토

표3. 시기별 유구규모



고령 지산동고분군 출토 철제농구에 대한 연구 7

지산동고분군에서는 5~6세기에 걸쳐 조영된 308기의 수혈식석곽과 80여기의 황구식·횡혈식석실이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4~7기의 분기 중 5세기 중엽인 5기에 집중적으로 조영되었으며 신라에 복속되기 전인 6기까지는 유구의 축조수량과 규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단축비를 살펴보면 대가야지역의 특징인 세장방형이 대체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5기에는 그 규모와 기수에 있어서도 다른 분기와 비교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형부터 중대형의 규모까지 다수의 분묘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이시기에 다양한 계층의 분묘가 축조될 만큼 당시 대가야 세력이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6세기 중엽에 속하는 7기가 되면 부가구연장경호와 인화문이 시문된 환형꼭지의 단각고배나 합 등이 출토되는 등 신라유물이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유구의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가야지역의 특징적인 세장방형 수혈식 석곽묘에서 갑자기 장방형의 석실로 형태가 전환되며 규모와 축조 수량도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는 562년 신라의 대가야 병합에 따른 복속화(服屬化) 과정의 일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1.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의 크기비교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지산동고분군의 농구관련 유물의 출토비율을 살펴보면 축소모형농구가 283점, 일반농구가 52점, 소도자¹⁰⁾가 149점 출토되었다. 축소모형농구의 출토 예는 일반농구에 비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와의 크기 차이는 한눈으로 보기에 확실한 차이가 나며 모양의

<표4>는 지산동고분에서 출토된 각 축소모형농구의 크기에 따른 분포도이다. 분포도를 살펴보았을 때 축소모형농구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농구가 소형화되어 변화되는 것과는 달리 축소모형농구를 처음부터 인식한 상황에서 부장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철검의 경우에는 축소모형농구와 비슷한 크기로 몇 점이 확인되지만 이것은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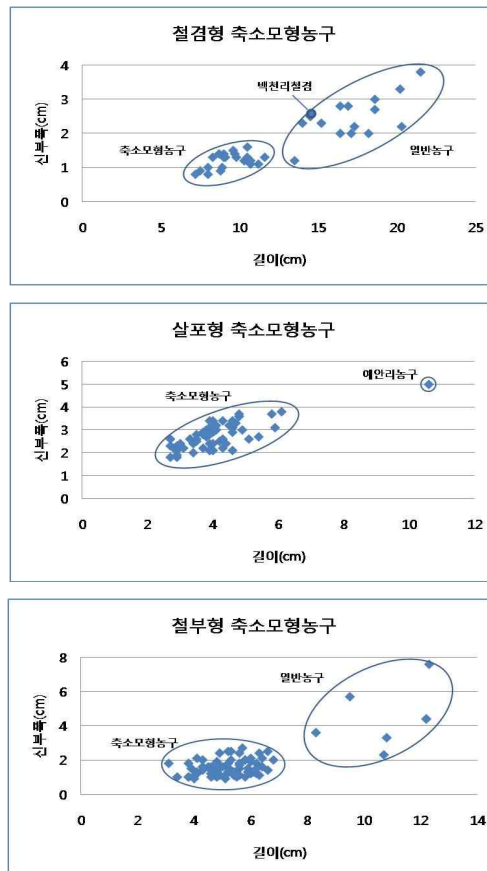
⁹⁾ 영남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동고분군 I~VI』, 2004~200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고령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2000 외.

¹⁰⁾ 소도자를 농구로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그 다용성(多用性)과 비 이외의 농작물 수확까지 생각한다면 수확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기존의 연구들의 일부는 소도자를 모형농구로 분류하였으나 지산동의 경우 일반 소도자와 모형품의 기준이 애매한 점이 많아 여기서는 일단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분류하였다.

식에 있어서 일반농구의 소형화¹¹⁾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순천은 축소모형농구에 대한 정의에서 구체적인 크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지산동의 경우에 단일 유적 내 출토된 유물들 간에 크기에 있어 확실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축소모형농구의 크기 설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검토결과 철검형은 대체로 길이 12cm 미만, 폭 1.6cm 이하, 살포형은 6cm 미만, 인폭 4cm 미만, 철부형은 7cm 미만, 인폭 3cm 이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축소모형농구의 소재가 되는 철판의 크기도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축소모형농구와 일반농구의 관계는 단순히 동일한 변화의 축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내재적인 인식차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다.

표4. 지산동 출토 농구의 비교



¹¹⁾ 철검형의 경우 함양 백천리 출토 철검은 보고서에서는 축소모형농구로 언급되고 있으나 일반농구의 소형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종별 출토 예에 있어서 일반농구는 철검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축소모형농구는 철검형, 철부형, 살포형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농구의 철검¹²⁾을 살펴보면 중형의 크기에 적도인 형식이 지산동 부장에 있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크기에 있어서 일부 소형화된 철검은 확인되나 이는 크기에 있어 축소모형과는 다르며 5기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농구의 철검은 대체로 중형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농구 자체가 시기적으로 소형화되는 등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축소모형농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기적(義器的)으로 소형화된 농구의 부장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단 조철부는 5기 이후부터 확인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전장이 길고 인부폭이 좁은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농구에 반해서 대가야 권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산동고분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용기로써의 농구가 아닌 축소모형농구로 인식되어온 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적인 농구에 비해 그 출토수량이 압도적이다.

표5. 일반농구 출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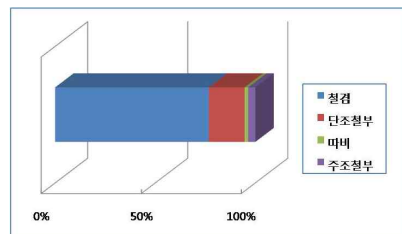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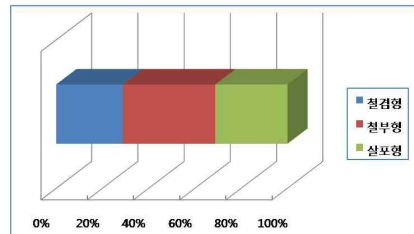


표6. 축소모형농구 출토비율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세장방형의 면적이 대략 1.5㎡ 이상인 유구에서만 부장되며 이러한 양상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 5기의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일반농구에 비해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이 대체로 상위의 규모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둘 사이에 확연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다만 7기에서 확인된 축소모형농구를 부장하는 유구의 경우에는 세장방형을 나타내지 않는데 유물과 분묘의 축조에 있어 신라화(新羅化)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8>을 살펴보면 실용적인 농구의 부장은 유구의 크기와 상관없이 부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축소모형농구가 출토되고 있는 분묘는 장단비 1:3 이하의 세장방형으로 면적이 대략 1.5㎡ 이상인 유구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¹²⁾ 대형-전장 20cm 이상, 중형-15cm 이상~20cm 미만, 소형-15cm 미만

표7. 농구의 시기별 부장양상(5~7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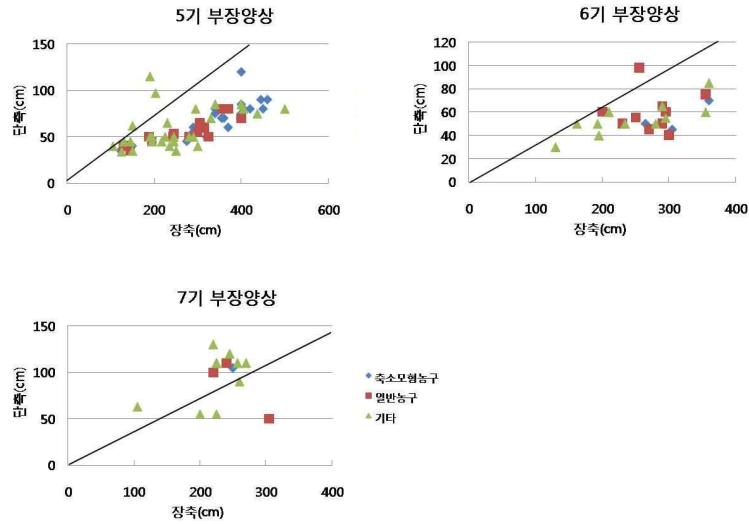


표8. 유구 규모별 농구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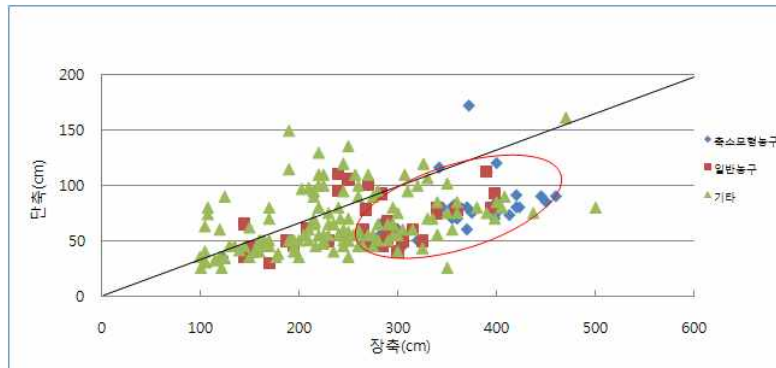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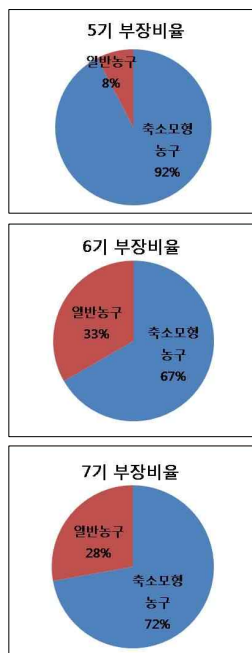
표9. 시기별 농구의 출토수량(지산동고분군1·2지구, 역사관부지)

분기 (유구수)	철검	단조 철부	주조 철부	살포	따비	축소모형농구		
						철검	철부	살포
4기(3)	1							
5기(48)	8	4			2	67	79	56
6기(30)	8	1				2	4	8
7기(9)	3		1			5	3	7

7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세장방형 유구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이 되는 석곽묘에 있어서는 중대형에 속하는데, 축소모형농구가 당시 지산동집단의 전 계층에 있어 일반적인 부장양상은 아니며 어느 정도 계층 이상에서만 영위할 수 있었던 부장습속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축소모형농구와 함께 출토되는 일반농구는 거의 없으며 함께 출토되는 것도 대부분 소도자라고 볼 때 일반농구의 부장과는 어느 정도 구별된다.

<표9>은 교란이 적은 석곽묘 90기를 대상으로 시기별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의 출토수량을 나타낸 표인데, 각 시기별 농구의 부장을 살펴보면 지산동의 중심시기라고 할 수 있는 5기(5세기 전엽~5세기 중엽)에 일반농구와 모형농구가 가장 많은 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농구는 철검, 단조철부, 따비 등 그 종류도 가장 많이 나타난다. 6기(5세기 후엽~6세기 전엽)가 되면 일반농구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축소모형농구부장의 갑작스런 축소로도 볼 수 있다. 시기별 유구수의 차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는 듯하다. 7기(6세기 중엽)의 경우에는 6기와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축소모형농구의 대부분이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는 I 지구 112호

표 10. 시기별 부장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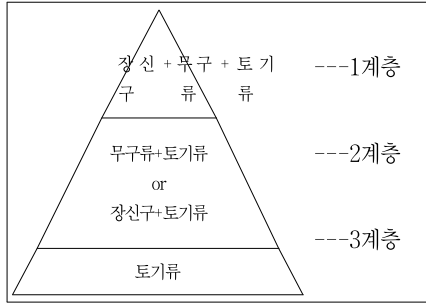


석곽에서만 출토되고 다른 유구에서는 대부분 일반농구가 출토되어 이시기에는 일반농구의 부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앞선 연구¹²⁾에 의하면 대가야지역의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통일기 양식 출현의 7세기 이후가 되면 그 예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6세기 중엽 이후 대가야의 신라복속 과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기 이전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의 축소모형농구 부장의 시작에 대한 확실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자료로 보아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대가야가 성장한 5세기부터 대가야 멸망전인 6세기 중엽의 기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농구는 대체로 수확구인 철검의 부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축소모형농구는 다양한 농구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산동고분군은 능선상의 대형고분군을 포함

¹²⁾ 안순천, 앞의 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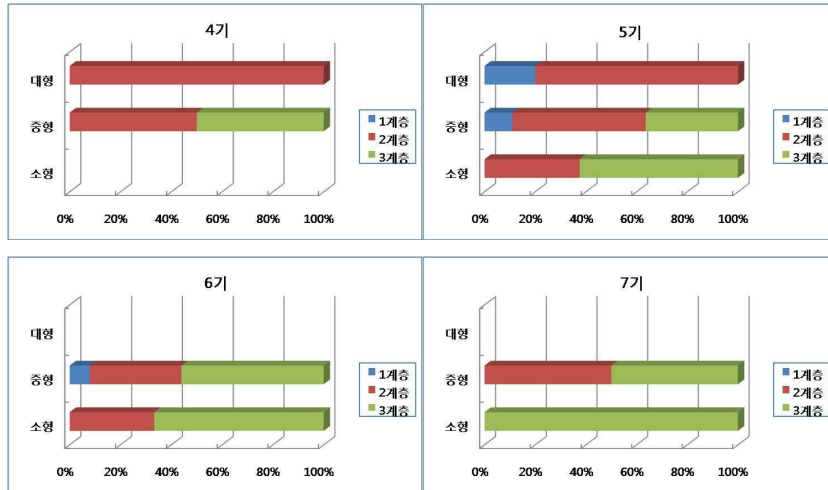
도2. 부장유물에 따른 계층분류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석곽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규모에 있어 계층적인 차이가 확인된다. 여기서는 석곽 90기를 대상으로 계층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농구의 부장유형을 살펴본다.

지산동고분군의 계층에 따른 부장유형을 살피기 위해 각 유구의 규모¹⁴⁾에 따라 소형-평면면적 1.2m² 이

하, 중형-평면면적 1.2m² 초과~3.6m² 이하, 대형-평면면적 3.6m² 초과로 분류를 한 후 유물을 크게 토기류, 무구류, 장신구류 등으로 나누어 그 부장 양상에 따라 각 계층을 설정하여 보았다.

표11. 유구 규모에 따른 유물부장



계층별로 분류하였을 때 지산동고분군 축조집단 세력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부장품이나 유구의 규모에 있어서 시기적인 변동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규모에 있어서 부장유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4기에는 대형에

¹⁴⁾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개인의 권력 정도를 나타낸다는 전제하에 유구의 규모에 따라 세단계의 계층으로 나누어 보았다. 규모는 장/단축길이를 이용한 면적을 통해 규모를 구했다. 지산동을 비롯한 대가야 지역의 고분들이 세장방형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으리라 생각이 되나 자료 분석에 있어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어 면적을 선택하여 분석을 행했다. 크기는 면적에 따라 각기 대·중·소형으로 분류하였다.

속하는 유구는 존재하나 1계층의 유물부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 중·소형의 유구가 축조되었으며 그 부장형태도 대부분은 토기류만 부장되거나 무구류만이 추가되고 있으며 장신구류는 출토되지 않았다. 5기에는 전 기간에 걸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데, 모든 규모의 유구가 존재하며 그 수는 적지만 대형의 유구에서 1계층의 유물부장이 나타나며 상위계층의 유물이 부장된다. 5기에 있어 지산동집단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 중형의 경우에도 1계층의 유물부장이 나타나는데 이는 유구 규모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에 대형에 가까운 1계층 유물 부장으로 이해 가능하다. 6기에는 대형의 유물부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5기와 마찬가지로 중형에서 1계층의 유물부장이 나타난다. 7기에는 대체로 유구의 소형화추세를 볼 수 있다. 교란된 자료를 포함하더라도 그 크기는 이전에 비해 크지 않으며 유물의 부장도 거의 토기류만 포함하는 3계층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산동집단 자체의 세력 약화 혹은 박장(薄葬)으로 변해감을 나타낸다. 소형의 유구에서는 유물 부장이 상위 단계에 비해 빈약하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높을수록 상위의 유물부장이 많이 나타났다.

단계별 철제농구의 부장을 살펴보면 일반 철제농구의 부장은 소형 혹은 중형의 유구 규모에서도 확인은 되지만 유물은 2계층 이상의 무구류나 장신구 등이 동반된 유구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축소모형농구의 경우에는 규모는 중형 이상, 유물은 2계층 이상의 유구에서 확인되었으며 특히 대형 2계층의 경우에 속하는 1지구 2호 석곽의 경우 다수의 축소모형농구가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축소모형농구는 대체로 한두 점보다는 기종별로 다수가 출토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12. 규모별 농구 부장 현황(소형)

	호수	일반농구				축소모형농구			기 타			비고
		철검	단조철부	주조철부	파비	살포	철검형	살포형	철부형	토기류	장신구류	
소형	역-5	1							○			소도자
	1-16		1						○			
	1-17								○		○	소도자2
	1-51	1							○		○	소도자2
	1-59						1		○		○	
	1-65											소도자
	1-86	1							○		○	
	1-145	1							○		○	
	2-86								○			소도자
	2-107								○		○	소도자
	2-117	1							○		○	

표13. 규모별 농구 부장 현황(중형)

	호수	일반농구				축소모형농구			기 타			비고	
		철검	단조 철부	주조 철부	파비	살포	철검형	살포형	철부형	토기류	장신 구류		무구류
중 형	역-10		1				2		7	○		○	마구류, 소도자4
	역-11	1								○			
	역-15	1								○			
	역-16	1								○		○	소도자
	역-28							1	1	○		○	소도자2
	역-29									○			소도자
	역-39	1								○			○
	역-55	1	1							○	○	○	소도자
	역-58						2		4	○			소도자4
	역-60	1								○			○
	역-70	1								○			○
	역-81	2								○	○		소도자5
	1-1									○		○	소도자
	1-3		1				2	3	8	○		○	마구류, 소도자4
	1-6	1							2	2	○		
	1-10						4	8		○		○	소도자4
	1-18						5	5	6	○		○	마구류, 소도자5
	1-40									○	○		
	1-41								2	○		○	
	1-54	1								○			
	1-57						2			○		○	소도자2
	1-61							1		○		○	
	1-64	1								○		○	
	1-81									○		○	소도자
	1-84						2		4	○		○	
	1-100										○		소도자
	1-107								1	○	○	○	마구류
	1-111						2			○		○	소도자
	1-112						5	4	3	○			
	1-113	1								○		○	
	1-119									○	○		소도자
	1-122		1							○			
	1-123									○		○	소도자
	1-124						3	1	9	○		○	소도자9
	1-125						1	4	1	○		○	소도자2
	1-133									○		○	소도자
	1-136						4	1	8	○	○	○	소도자3
	1-140						4		3	○		○	소도자3
	2-1									○	○		소도자
	2-6							1		○		○	
2-7						7	6	4	○	○	○	마구류, 소도자4	
2-16	1								○	○	○	소도자	
2-17	1	1							○		○	소도자	
2-25									○			소도자	
2-26	1		1						○				
2-27	2	1							○		○	소도자	

	2-32							4		○			소도자
	2-33	1								○	○	○	
	2-35							4	1	○	○		소도자3
	2-44									○			소도자
	2-65						1	3		○			소도자
	2-68	1								○		○	
	2-70									○	○		소도자
	2-77							5	4	○			
	2-80						1	2		○			
	2-89						2		3	○		○	소도자2
	2-103									○			소도자3, 유자이기
	2-114						4	2		○	○		
	2-116									○		○	소도자

표14. 규모별 농구 부장 현황(대형)

단계	호수	일반농구					축소모형농구			기 타			비고
		철결	단조 철부	주조 철부	파비	살포	철결형	살포형	철부형	토기류	장신 구류	무구류	
대 형	역-2						3	3	4	○		○	마구류, 소도자
	1-2						2		7	○	○		소도자
	1-52						5	2	4	○		○	
	1-55							1	2	○		○	마구류, 소도자
	1-97								2	○			소도자

다음으로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의 동반부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기의 <표12, 13, 14>을 보면 두 유물이 동반되는 예는 2기에서만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유구는 중형 이상의 유구에서 확인되었으며 부장유물은 그 종류와 수량에서 다른 유구와 비교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동반부장의 유구가 유물은 다량 부장되어 있으나 그 크기에 있어서는 대형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철제농구와 축소모형농구의 동반부장이 지산동의 상위계층을 위한 특별한 부장 유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의미의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대형의 유구에서는 일반농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공반되는 부장유물을 검토해 보았을 때 축소모형농구의 부장 쪽이 대체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서 두 부장양상 간에 약간의 계층적 차이는 있어 보이나, 일반농구만 출토된 33호 석곽의 삼엽문환두대도나 이식 등 그 부장양상을 보면 축소모형농구를 부장한 유구에 비해 풍부한 경우도 확인되고 있어 어느 위치 이상에서는 단순히 축소모형농구의 부장 여부에 따라 계층성을 나누기는 힘들다. 또한 규모나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 상위계층에 속하더라도 농구나 축소모형농구가 전혀 부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이 지산동고분군에 있어서 최상위계층의 전 유물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이는 비록 교란되긴 했지만 대형분인 44·45호분

과 그보다 작은 33호분의 조사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5세기 중후반에 속하는 세 고분에서는 축소모형농구가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반농구인 철검과 단조철부만 출토되었다.

5기에 두 유물의 동반부장이 일부 확인되는데 이를 5세기 전엽에서 중엽의 유구로 상정했을 때 5기를 전후로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에 대한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전·후 시기의 유구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 두 유물을 동반하는 유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두 부장습속간의 부장인식차이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또한 고총고분인 지산동 33호분이나 35호분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서 대형에 포함되며 유물부장에 있어서는 1계층에 속하는 상위계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고총고분 내의 철제농구의 부장은 각기 일반농구부장과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느 한가지의 부장유형이 상위에 있는 부장습속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나타내며,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라는 두 가지의 부장양상이 동일한 지산동고분군 축조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부장습속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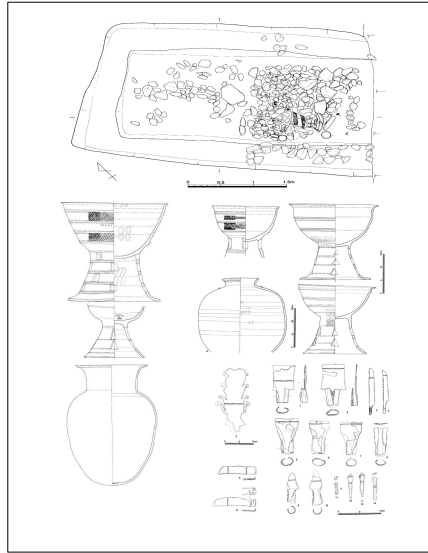
농구의 조합에 있어서도 일반농구의 경우에는 그 출토예나 조합의 수가 많지 않아 철검 혹은 단조철부의 개별적이거나 단순한 조합만 나타나고 있지만 축소모형농구의 경우에는 단계에 따라 몇 가지의 조합양상이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계층적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위계층 내에서 농업생산과 관련한 피장자의 성격이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시기적 양상

지산동고분군의 축조시기 중 7기 이후를 제외하면 거의 전시기에 일반농구를 작게 만든 축소모형농구가 확인된다. 일반농구의 경우에는 철검과 단조철부가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은 출토수량을 보이고 축소모형농구의 경우에는 철검형, 철부형, 살포형 등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축소모형농구를 포함한 철제농구의 부장은 대가야의 발전양상¹⁵⁾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김해의 금관가야가 쇠퇴한 4세기 후반 이후 급격히 가야의 맹주로서 떠오른 대가야의 지위를 나타내는 듯 4세기 이후로 고총고분의

¹⁵⁾ 고령의 소국에서 출발해 5세기 전반에 급속한 성장을 한 반로국은 농업생산력·철생산 등을 바탕으로 중국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가질 만큼 성장하였고 교역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반의 변화와 그에 기초한 지배체제의 변동 등 대가야로 정치체제로 성격전환이 일어난다.



도3. 쾌빈동고분군 1호 목곽묘와 출토유물

축조와 함께 다량의 유물 부장과 장신구, 축소모형농구를 포함한 철제농구의 부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5세기에 정점에 이르는듯하다. 이 시기에 다양한 형식의 일반농구와 함께 축소모형농구의 다량 부장은 당시의 대가야의 발전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신라에 의해 대가야가 편입되는 시기를 전후로 지산동고분군은 그 규모와 부장유물 등에서 쇠퇴양상을 나타내며 유물의 부장도 신라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철제농구는 6세기 이후로 그 부장 수량이 줄어들는데, 축소모형농구의 경우도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축조되는 분묘의 수 자체가 적어지며 부장 수량자체가 줄어들는데 이는 부장습속의 변화라기보다 당시의 대가야 세력의 쇠퇴와 연관된 현상이었다.

부장양상에 대해 시기적 양상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앞서 밝히 바와 같이 5세기 이전대의 자료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하지만 대가야지역 내에서 4세기대 유적의 확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목곽묘가 확인된 인근의 쾌빈동고분군을 참고하고자 한다. 지산동고분군과 인접해 위치하는 쾌빈동고분군의 경우에는 이지역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비록 교란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5~6세기에 집중되었던 대가야의 고분 자료에 있어 시기적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지산동고분군 축조집단과의 연속성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출토된 토기와 위치로 보아 대가천(大伽川)과 회천(會川)을 중심으로 한 고령읍을 중심으로 한 동일한 영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쾌빈동고분군 1호 목곽묘는 어느 정도 교란은 되었으나 부장유물의 유형으로 보아 최소 2계층 이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기대 등을 볼 때 5세기 전엽 혹은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1호 목곽묘에는 철검형 축소모형농구들이 출토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산동 비교해서 결코 적은양은 아니다. 이는 축소모형농구의 다량 부장이 5세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적인 부장습속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또한 쾌빈동1호 목곽묘의 경우 일반농구가 함께 부장되는데 지산동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살포와 따비로 추정되는 철기가 있다. 그리고 일반농구와 축소농구의 동반부장은 나타났으나 지산동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종은 중복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료가 많지 않아 확실치는 않으나 살포 등의 자료로 보아 5세기 전의 일반농구의 부장은 지산동의 5세기와는 달리 그 종류가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일반농구와 일정시기 공존하며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다 5세기를 기점으로 변하는데, 일반농구의 부장은 철검과 단조철부 부장으로 단순화되고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그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살포형 등이 추가로 부장되었다. 5세기 이후의 농구와 관련한 매장유물의 변화는 부장습속의 큰 변화를 뜻하며 5세기를 기점으로 일반농구부장과 축소모형농구부장 형태가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이후 확인되지 않는 일반농구인 철서 등은 축소모형농구로써도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의 농업경제에 있어 이 도구들의 중요도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된다.

3. 계층적 양상

철제농구의 보급이 제한된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의미는 일차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그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무덤에 부장된 물건은 일단 개별적인 소유가 확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장자의 사유물로 인정된다. 결국 철제 무기나 철제농구의 절대량이 공동의 소유라기보다는 개인이나 지배집단의 전유물로 개인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철제도구로써의 효용성 못지않게 개인의 부와 계층에 대한 의미가 강함을 나타내는 부장의례¹⁶⁾로 볼 수 있다.

지산동의 철제농구는 대체로 하위계층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유구의 규모와 부장유물로 볼 때 어느 정도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만 부장되는 유물로 추정된다. 물론 이것을 실제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어려우나 당시 지산동고분 축조집단의 경제의 중심인 농업생산과 큰 관련이 있었던 계층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여러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의기화(儀器化)되는 다수의 유물 중에서 축소모형농구로 나타나는 철제농구의 심불화(symbolization)는 의기로써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 지산동 집단에 있어서 철제농구의 생산적인 면에서의 중요성을 상징하리라 생각되며 농업의 중요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¹⁶⁾ 의례는 그것을 행하는 행위자나 증인들에 대해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다소 반복적이면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부호화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행위의 총체이다. 그리고 의례는 그 의도된 효과가 인과관계의 기술적 도구성으로 소모되는 순전히 경험적인 논리와는 비록 관련이 없다 해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정신적이고 무의식적이기까지 한 어떤 지위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리비에르(C. Riviere), 1995, 『세속적 의례』.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거의 동반되지 않는데, 최상위계층에서 중간계층에 걸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농구부장이 출현하는 시점을 떠나서라도 일반농구가 부장품으로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축소모형농구가 부장되는 것은 두 부장 습속간의 차이가 계층적인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개별적인 부장습속의 의미차이로 볼 수 있다. 물론 1지구의 3호와 6호 석곽들처럼 두 가지 유물을 동반하는 유구도 있으나 그 수량이 현저히 작으며 이런 경우에도 대체로 축소모형농구가 일반농구에 비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종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부장습속간의 의미차이는 확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5세기를 기점으로 확인되는데 앞서 살핀 쾌빈동의 자료를 보면 기존의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가 혼용된 부장습속에서 5세기 이후로 서로 전혀 다른 부장습속인 것처럼 분화되어 나타난다.

지산동의 이른 시기(5세기 전반 혹은 4세기)의 농구부장은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이 혼용되어 나타나다 5세기대에는 혼용되지 않고 별개로 사용되는데, 축소모형농구를 부장하는 사람들의 집단 내 성장에 따른 부장습속의 분화로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상위층의 전유물로 고정되어 간다. 일반농구를 부장한 사람들은 중상의 계층으로 축소모형농구를 부장하는 사람들과는 집단 내에서 다른 부장습속을 가지고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농업과 실질적인 관련을 나타내는 일반농구를 부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을 본다면 일반농구를 부장하는 유구와 축소모형농구를 부장하는 유구의 성격을 비교해 볼 때 고령지역 뿐만 아니라 대가야권지역 내에 분포하는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이 5세기 이후 지산동 상위계층의 부장습속¹⁷⁷⁾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거나, 축소모형농구 부장을 전통으로 하는 집단의 대가야 내에서의 성장으로 생각된다. 특히 합천 반계제고분군이나 남원 월산리고분군의 출토 예를 보아도 해당 분묘 중 그 규모와 유물 부장에 있어 최상위에 속하는 유구들이 축소모형농구를 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소모형농구의 계층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농구가 축소모형농구에 비해 그 크기가 크며 실용적인 농구라는 실제적 상징성¹⁷⁸⁾을 보았을 때 더욱 상위계층의 부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산동의 경우를 살폈을 때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이 일반농구의 부장에 비해 더욱 비중이 있게 나타난다.

¹⁷⁷⁾ 부장의례의 형태는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적 행위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역적, 문화적으로 많은 특징을 나타낸다. 이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합쳐져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 말하는 주부장습속은 단순한 부장의례내의 일련의 부장습속이 아닌 동일한 문화권내지 세력권 안에서 집단 혹은 지역 내에서 존재하던 다양한 부장습속 중 가장 중시되어 선택된 하나를 말한다.

¹⁷⁸⁾ 실제 사용되는 도구와 동일한 크기의 부장품은 그 의미에 있어서 소형화되고 의기화 된 부장품에 비해 그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 더욱 확실한 경우가 있다.

일반농구나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에 있어 계층성은 단순히 수량적인 계량에만 치중한 판단은 문제가 있다. 이는 지산동의 유구나 부장유물을 비교해 볼 때 최상위 계층에서 반드시 다수의 농구나 축소모형농구가 출토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량 부장을 통한 지위과시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축소모형농구를 살펴보면 상위계층에서 다양한 조합양상과 다량의 축소모형농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상위계층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피장자 혹은 피장자와 관련된 실제 분묘를 축조한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계층적 의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상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수적인 차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산동에서 있어서 농구의 부장은 의례적인 면에 있어서 수적인 문제보다도 그 자체가 부장되는 사실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축소모형농구와 대가야권역

축소모형농구는 대가야토기와 함께 지금까지 대가야의 권역을 나타내는 표지유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대가야라는 등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있다. 물론 위세품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 고령 외의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는 축소모형농구는 그 수량이 많지 않으며 상위계층의 분묘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본다면 일부는 대가야의 정치적 세력이 미치는 곳이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이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권역¹⁹⁾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일한 대가야권역에 속하는 인근의 합천지역의 반계제고분군을 살펴보면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다-A호분에서 철검형 8점, 철부형 15점이 출토되었다. 역시 규모가 큰 유구에서 확인되는 등 지산동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그 외의 이른 시기에 속하는 저포리고분군 등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5세기 이후로 지산동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의 성장과 함께 합천지역으로 지산동 집단의 일부가 진출하며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옥전고분군을 살펴보면 5세기 중후반 대가야계 토기가 다량부장 되는 등 고령지역과는 밀접한 관계가 보이지만 축소모형농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일반농구의 부장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농구의 부장

¹⁹⁾ 안순천, 앞의 글, 1997.

예도 어디까지나 대형고분에 한정되어 나타나는데, M3호분에서는 지산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철제 자루를 가진 살포와 다량의 주조철부가 시상에 깔려 확인되었다. 일반농구의 철점은 대형에 속하는 것으로 그 크기와 형태에서 일반적인 수확도구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옥전고분군에서 다수의 철제 무기와 마구 등이 출토되는 점을 볼 때 지산동고분과는 다른 부장습속을 가졌다고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합천의 옥전집단은 단순히 대가야의 문화적·정치적 세력권에 포함된 지역으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지산동과는 별개의 부장습속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축소모형농구가 대가야계 토기와 함께 고령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대가야 권역에 분포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사실들과 출토예가 지산동에 대부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대가야의 영역을 축소모형농구분포와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전남지역인 남원, 임실 등에서 확인되는 축소모형농구와 대가야계 토기는 대가야의 최전성기인 5세기 중후반의 이 지역의 일시적인 점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6세기 전반 소백산맥 서쪽의 기문 즉, 남원, 임실지역을 놓고 백제와 경쟁하다 패배 후 영역 방비를 위해 축성하였다는 기사²⁰⁾와 이 지역에서 5세기 후반의 대가야계 토기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한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축소모형농구의 출현



도4. 대가야 권역과 축소모형농구 출토지

²⁰⁾ '倭破築城於子吞, 帶沙而連滿奚 置烽族邸閣 二備日本 復築城於 列爾比麻須比 而緬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略子女 剝掠村邑 區勢小加 --' (『일본서기』 권제17계체기8년(514)3월 조)- 방비를 위해 축성을 하였는데 상기의 그 대상지는 子吞, 帶沙, 麻須比, 爾列比 즉 거창, 하동, 삼가, 의령 등의 지역이다.

은 5세기의 지산동 집단이 대가야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야의 세력범위와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사실들을 보았을 때 이를 단순히 대가야의 세력범위로 보기 보다는 고령의 지산동 집단과 관련되어 그 부장습속이 일부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매장습속의 변화는 단순한 물적 교류로는 바뀌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지산동집단과 관련된 점령, 혼인 등과 같은 인적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지역적 지배수단으로 분배된 유물이 아닌 지산동 축조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지적인 부장위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자(死者)에게는 당시의 다양한 농업도구를 통한 지위와 부를 나타내며, 분묘를 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축소모형 농구 사용전통과 그에 따른 계층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IV. 철제농구의 부장배경

대가야는 고령의 소국에서 출발하여 5세기 전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물론 고령의 반로국이 대가야로 성장하는 이면에는 농업생산²¹⁾과 철의 생산²²⁾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²³⁾ 그러나 농업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비해, 대가야의 중심고분인 지산동고분군의 철제농구 부장양상은 이러한 상황과는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활발한 농업경제에도 불구하고 철제농구 부장은 크지 않았으며 이를 대신해 축소모형농구라는 부장형태가 주로 나타났다. 지산동에서는 상위계층에게 있어서도 실제 일반농구의 부장보다도 다양한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을 통해 농업생산력의 과시나 독점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연구²⁴⁾에 의하면 축소모형농구의 등장은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대가야권역에서 확인되는 재지적인 부장습속으로 대가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철

21) 外伽倻川水田極沃 種一斗 出百二三十斗 小不下 八十斗 水饒而不知 旱災… (『擇里志』卜居總論 山水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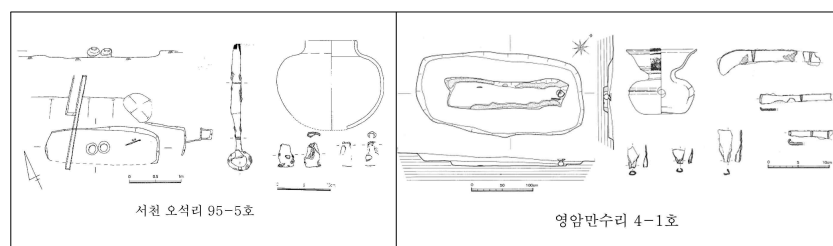
22) 治爐縣本赤水縣 景德王改名 爲高嶺郡領縣 土產銀口魚松耳 沙鐵… (『世宗實錄』권150 地理地慶尙道 陝川郡·山陰縣·三加縣 土產條) 조선시대 기사에 나타나는 아로지역의 철생산을 비롯하여 고령군 쌍림면 용리일대에서도 야철지가 확인되는 등 활발한 철생산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3) 조영훈, '5~6세기 대가야의 정치적 위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19쪽.

24) 안순천, '대가야권역의 축소모형철제농공구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7.

수급과 관련한 지구책과 맞물려 활발히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금관 가야 멸망 후 5세기를 전·후로 한 대가야의 급격한 성장에 있어 상당히 증가하는 철의 수요를 전부 충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계층을 나타내는 위세품인 무기나 다른 장신구와 달리 대가야 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과 관련한 철제농구를 일반농구의 크기에 비해 1/3 정도로 작게 축소된 축소모형농구를 부장함으로 철의 활용을 극대화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다르게 고령의 축소모형농구 등장에 대해 일부 연구자²⁵⁾는 축소모형농구가 백제지역의 이른 시기 유적에서 확인되기에 그 기원은 백제와 대가야의 교류에 의해 대가야로 확산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4세기 전반에서 5세기로 비정되는 부여, 서천, 영암 등지의 유적에서 축소모형농구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축소모형농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다.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그 지역에 있어 시기적인 연속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백제와 고령지역과의 관계를 상정해볼 수 있다. 대가야지역에 있어 쾌빈동고분군 축조 이전의 3~4세기대의 확실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축소모형농구의 기원에 있어서 백제와의 관련성을 제시한 후자 쪽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지산동의 최상위계층이 축소모형농구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 실제 지배계층이 철의 수급이나 철의 부족을 걱정할 리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량의 철 부장을 통한 자신의 지위과시가 더욱 자연스러울 듯하다. 설령 축소모형농구로 인해 철이 절약되더라도 그들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층에 있어서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실제적인 권력과시 보다는 전통적인 부장습속이라는 정서적인 면이 크게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5. 서천 오석리95-5호 / 영암 만수리 4-1호 출토 축소모형농구

²⁵⁾ 이현주, 「유자이기에 대하여」, 『동래북천동고분군Ⅱ』,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박순발, 「가야와 한성백제」, 『가야와 백제-제6회가야사학회』, 김해시학술위원회, 2000.

자구책이 아니라 집단 내 전통적인 부장습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으며 축소모형농구 부장은 지산동집단의 성장과 함께 성행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축소모형농구와 일반농구가 함께 부장되는 예가 거의 없으며 5세기대 이후로 축소모형농구가 급격히 부장된다. 이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이 지배계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개인의 활동과 지위에 따른 선택적인 요소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집단 내에 두가지의 부장습속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축소모형농구와 일반농구는 계층적 차이에 따른 조합과 수량의 차이는 있으나 그 부장 예는 전체적으로 고르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자의 경우는 현 자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후자의 경우가 지산동 철제농구 부장을 이해하는데 더욱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지산동 철제농구의 부장에 있어 5세기대 이후로 급격히 부장되는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대가야가 성장하는 5세기 전에 외부적인 요소의 유입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영암 만수리나 신연리, 내동리 초분골유적, 서천 오석리유적의 경우에는 3세기~4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는 백제지역으로 축소모형농구가 부장되는 예가 확인되고 있다. 백제(마한)의 지역적인 전통인지 확실치 않으나 지산동고분의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4세기말의 정세는 고구려-신라, 백제-가야-왜가 대립을 이루고 있던 시기로 백제와 대가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늦어도 5세기 전반에 백제로부터 장식대도 문화 등이 일부 수용되는 등²⁶⁷ 다양한 방면을 통해 백제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소국으로서 백제지역과 밀접한 관계 속에 성장을 하던 대가야는 400년 고구려의 남정에 의해 백제를 비롯한 금관가야 등의 한반도 남부세력이 위축되고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 일시적인 백제의 전남 동부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짐에 따라 임실, 남원 등지로 그 세력을 확장하며 섬진강유역과 하동을 세력권에 넣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479년 중국 남제와도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성립하게 된다. 대가야 발전의 밑바탕에는 지산동 집단 내의 백제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무리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5세기를 전후로 축소모형농구가 점차 부장되며 어느 정도는 일반농구와 공존하다 대가야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부장되면서 분화되고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는데 총력을 벌이는 동안 이를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등 전성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 전성기는 백제가

²⁶⁷ 이한상, '장식대도로 본 백제와 가야의 교류', 『백제연구』43, 충북대학교 백제연구소, 1996.

정치적으로 안정된 무령왕대와 성왕대의 섬진강 하구를 포함한 기문, 대사지역의 점령을 기점으로 쇠락하게 된다.

V. 맺음말

지산동고분군의 철제농구의 부장은 대가야권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 하듯 타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축소모형농구가 다량 부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소수이긴 하지만 실용품으로써의 농구도 부장되고 있다. 5세기 전엽에서 6세기 초엽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일반농구와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유형을 통해 도구의 부장이 집단 내 계층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농구의 부장수량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데 이는 축소모형농구 부장이라는 매장형태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기에 이를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었던 듯하다.

축소모형농구는 단순한 사자에 대한 의기로도 인식가능하나 부장유물은 어디까지나 사자(死者) 이후의 후대인에 의해 부장되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적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듯하다. 앞선 검토에 의하면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습속을 가진 지산동 고분군집단은 대가야가 급격히 발전하는 5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일반농구의 부장습속 예는 축소되며 단순한 기종으로 변하는 것에 비해 축소모형농구는 그러한 일반농구를 대체하며 더욱 확대되는데 이러한 배경은 대가야의 급격한 발전과 집단 내부의 사회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산동의 축소모형농구와 일반농구의 부장은 그 배경에 있어 완전히 달리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서로 시기적·지역적 영향에 따른 상관관계 아래 함께 변화·유지되어 온 지산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장형태로 볼 수 있다. 백제지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자체가 지산동 집단에서는 지위의 과시로 표현된 것이며,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대가야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은 대가야권역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낼만큼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축소모형농구의 부장을 대가야의 지배권을 상징한다고 보기보다는 지산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부장습속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 이면에 내재된 집단 내 부장습속과 매장문화를 동반한 지역 간 교류에 중점을 두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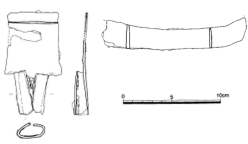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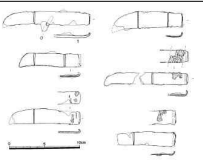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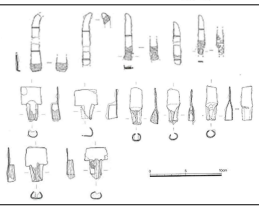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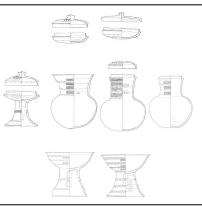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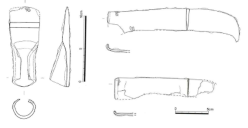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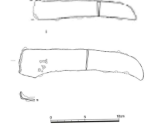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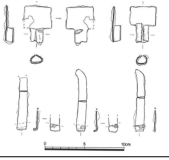

■투고일 2011년 7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30일 ■

표15.대가야권 축소모형농구 출토현황

순번	지역	출 토 지	유구	살포 형	철부 형	철검 형	순번	지역	출 토 지	유구	살포 형	철부 형	철검 형
1	고령	쾌빈동1	목곽			8	43		지산동1-111	석곽			2
2		쾌빈동6	석곽	2		3	44		지산동1-112	석곽	4	3	5
3		쾌빈동7	석곽			1	45		지산동1-116	석곽			
4		쾌빈동9	석곽		3	2	46		지산동1-124	석곽	1	9	3
5		쾌빈동10	석곽		4	1	47		지산동1-125	석곽	4	1	1
		소계		2	7	15	48		지산동1-136	석곽	1	8	4
6		지산동30	주곽		1		49		지산동1-140	석곽		3	1
7			부곽	5	7		50		지산동2-6	석곽	1		
8		지산동32	석곽	1	3		51		지산동2-7	석곽	6	4	7
9		지산동35	석곽	2	12	5	52		지산동2-18	석곽	2	2	2
10		지산동32 SW-1	석곽	4	4	3	53		지산동2-20	석곽	1	1	
11		지산동34 SE-2	석곽		1		54		지산동2-32	석곽	4		
12		지산동34 SE-3	석곽		1		55		지산동2-35	석곽	4	1	
13		역사관2	석곽	3	4	3	56		지산동2-65	석곽	3		1
14		역사관5	석곽			1	57		지산동2-77	석곽	5	4	
15		역사관10	석곽		7	2	58		지산동2-80	석곽	2		1
16		역사관17	석곽		1		59		지산동2-89	석곽		3	5
17		역사관28	석곽	1	1		60		지산동2-114	석곽	2		4
18		역사관41	석곽	2	3	1	61		영남대-지산동1	석곽	4		
19		역사관42	석곽		2	2	62		영남대-지산동2	석곽		1	4
20		역사관43	석곽		7		63		영남대-지산동4	석곽	4		3
21		역사관58	석곽		4	2	64		영남대-지산동11	석곽	4		4
22		역사관62	석곽	1			65		영남대-지산동12	석곽	1		
23		역사관67	석곽	4	5	3			소계		112	153	108
24		역사관72	석곽	1			66		본관동34	석곽	18		8
25		역사관81	석곽	4	4	4	67		본관동35	석곽	2		
26		지산동1-2	석곽		7	2	68		본관동36	주곽	3		3
27		지산동1-3	석곽	3	8	2	69			부곽	2		
28		지산동1-4	석곽	3	3	4	70		본관동A	석곽	1		
29		지산동1-5	석곽	1	3	4	71		본관동B	석곽	3		1
30		지산동1-6	석곽	2	2		72		본관동C	석곽	2		
31		지산동1-10	석곽	8		4	73		본관동D	석곽	2		1
32		지산동1-18	석곽	5	6	5	74		본관동F	석곽	6		
33		지산동1-32	석곽	2	3	3	75		본관동I	석곽	1		
34		지산동1-41	석곽		2				소계		40		13
35		지산동1-52	석곽	2	4	5	76	합 천	반계제다A	석곽		15	8
36		지산동1-55	석곽	1	2		77	남 원	월산리M1-A	석곽	5	7	6
37		지산동1-57	석곽			2	78	임 실	금성리	석곽		1	1
38		지산동1-59	석곽			1	79	산 청	생초 M13	석곽		16	17
39		지산동1-61	석곽	1					소계		5	39	32
40		지산동1-84	석곽		4	2			총 계		159	199	155
41		지산동1-97	석곽	5	1								
42		지산동1-107	석곽		1								

표16.지산동고분군 시기별현황

※ I:영남문화재연구원, (지산동고분군1지구), II:영남문화재연구원, (지산동고분군2지구), 역: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지산동고분군-대가야역사관신축부지), 축적부동

시기	출토농구	축소모형농구	기타유물	유 구	비고
4기				쾌민동1, I-1 역-16	
5기				I-2, 3, 4, 5, 6, 7, 10, , 18, 32, 35, 36, 38, 40, 41, 44, 53, 55, 57, 59, 61, 66, 81, 84, 86, 97, 107, 111, 122, 123, 124, 133, 136, 145 II-21, 26, 44, 68, 70, 104 역-2, 8, 15, 18, 41, 42, 58, 82	지산동 30, 32, 33 34, 35호
6기				I-17, 31, 33, 51, 64, 118, 119, 140 II-16, 21, 25, 44, 68, 70, 104 역-3, 5, 11, 25, 28, 29, 39, 46, 50, 55, 60, 70, 79, 81	지산동 44, 45호
7기				I-112, 116 II-6, 14, 26, 51, 103, 108 역-52, 67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삼국사기』

김도현, 2001, 「고대의 철제 농구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도현, 2002, 「삼한시대 주조철부의 유통양상에 대한 검토」, 『영남고고학보』31, 영남고고학회

김두철, 2001, 「대가야 고분의 편년검토」, 『한국고고학보』45, 한국고고학회

김세기, 1999, 「대가야의 발전과 주변제국」, 『대가야와 주변제국』, 학술문화사

김승옥, 2001, 「김해 예안리 고분군 축조집단의 사회구조와 성격」, 『영남고고학』 29, 영남고고학회

김재홍, 1997, 「살포와 철서를 통해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 『科技考古 研究』2, 아주대학교박물관

_____, 1999, 「대가야지역 철제농기구의 부장양상과 그 의의」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 푸른역사

_____,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2, 푸른역사

_____,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3, 푸른역사

김현숙, 2000, 「6세기 대가야의 발전단계에 대한 일고찰」, 『경북사학』23

박광춘, 2000, 「가야토기의 시원과 김해·부산지역 토기편년 재검토」, 『영남고고학보』27, 영남고고학회

_____, 1990, 「합천지역 토기의 편년적 연구」, 『고고역사학지』 5·6합본

박순발, 2000, 「가야와 한성백제」, 『가야와 백제- 제6회 가야사학술회의』, 김해 시학술위원회

백승옥, 2001, 「주제발표3-가라국과 주변가야제국」, 『대가야와 주변제국』제26회 한국상고사학회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서영남, 1990, 「철검에 대해」, 『동래복천동고분군Ⅱ』, 부산대학교박물관

서영남·이현주, 1997, 「삼한·삼국시대의 철기의 의기적 성격에 대한 일고찰」, 『가야고고학논총』2, 가야문화연구소

성정용, 2001, 「주제발표1-대가야와 백제」, 『대가야와 주변제국』, 제26회 한국상고사학회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손명조, 2008, 『백제의 철기문화』, 주류성

손지안, 1992, 「5~6세기 대가야의 성장과 문화적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

학원

- 안순천, 1997, 「대가야권역의 축소모형철제농기구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 안재호, 1999, 「철검의 변화와 획기」, 『가야고고학논총』2, 가야문화연구소
- 양기석, 2007, 「5세기 후반 한반도 정세와 대가야」,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대가야』,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고령군대가야박물관
-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편, 1995, 『가야제국의 철』, 신서원
- 이근수, 1983, 「한국 농업기술 발달의 사적 고찰」, 『한국의 농경문화』, 경기대학교 출판부
- 이성주, 2007,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성격」,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고령군대가야박물관
- 이한상, 1996, 「장식대도로 본 백제와 가야의 교류」, 『백제연구』43,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이형기, 2003,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3
- 이현혜, 1991, 「삼국시대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4~5세기 신라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8,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1998, 「삼한의 농업생산과 철제농기구」,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一湖閣
-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1995, 『가야제국의 철』, 신서원
- 천말선, 1994, 「철제농구에 대한 고찰-원삼국·삼국시대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15, 영남고고학회
- 최중규, 1991, 「무덤에서 본 삼한사회의 구조 및 특징」, 『한국고대사논총』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한국고고학회 편, 2000, 『고고학을 통해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 한국고고학회 편, 2007,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 한병삼, 1971, 「선사시대 농경문청동기에 대하여」, 『고고미술』112, 한국미술사학회
- 홍보식, 2001, 「농기구와 부장유형-영남지역의 2세기 후반~4세기대 분묘 부장품을 대상으로」, 『한국고고학보』44권, 한국고고학회
- 홍진근, 1992, 「고령 반운리 와질토기유적」, 『영남고고학』10, 영남고고학회
- 현기욱, 1991, 「3~4세기를 중심으로 한 삼국의 철제 농기구 발전과 농업의 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 李東冠·保元良美·小嶋篤·武末純一, 2008, 「彌生·古墳時代の韓·鐵製農具 研究-따비와 살포를 중심으로-」, 『한·일 교류의 고고학』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8회 합동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

학회

- 高橋統一, 1994, 『文化人類學 辭典』, 弘文堂
有光教一, 1967, 「朝鮮半島における鐵製農具の變遷について」, 『末永先生古稀記念古代學論叢』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青木書店
飯沼二郎, 1987, 『農具-ものと人間の文化史』19, 法政大學出版局

보고서 및 도록

- 경북대학교고고인류학교, 1987, 『합천 저포리D지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88, 『합천 옥전고분군 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합천 옥전고분군 I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2, 『합천 옥전고분군 II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3, 『합천 옥전고분군 IV』
경상대학교박물관, 1995, 『합천 옥전고분군 V』
경상대학교박물관, 1996, 『합천 옥전고분군 V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8, 『합천 옥전고분군 VI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9, 『합천 옥전고분군 VIII』
경상대학교박물관, 2000, 『합천 옥전고분군 IX』
경상대학교박물관, 2003, 『합천 옥전고분군 X』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고령군, 2000, 『고령 지산동고분군』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대성동고분군 I』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대성동고분군 II』
경성대학교박물관, 2003, 『김해 대성동고분군 III』
국립진주박물관, 1987, 『합천 반계제고분군』
국립광주박물관, 1990, 『영암 만수리 4호분』
국립광주박물관, 1993, 『영암 신연리 9호분』
국립청주박물관, 1990,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고령군, 1982, 『대가야 고분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박물관, 1996, 『오석리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분강·저석리고분군』
계명대학교박물관, 1981, 『고령 지산동고분군』
동아대학교박물관, 1986, 『합천 봉계리고분군』
동아대학교박물관, 1989, 『합천 창리고분군』

부산대학교박물관, 1986, 『함양 백천리1호분』
 부산대학교박물관, 1985, 『김해 예안리고분군 I』
 부산대학교박물관, 1993, 『김해 예안리고분군 II』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동래 복천동고분군 II』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3, 『南原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영남대학교박물관, 1987, 『합천 저포리고분군』
 영남대학교박물관, 2004, 『고령 지산동고분군』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고령 지산동고분군 I』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지산동고분군 II』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지산동고분군 III』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지산동고분군 IV』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지산동고분군 V』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지산동고분군 VI』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고령 쾌빈동고분군』
 창원대학교박물관, 1988, 『합천 저포리B고분군』
 김해시, 1998, 『김해의 고분문화』

Abstract

A Study on the Agricultural Iron Implements found from Jisan-Dong Tomb Site, Goryeong

Kang, Seok-Beom

Iron has been always in the centre of the social power and wealth in the ancient time. But iron also plays such an important role to change the society.

In this work, therefore, iron agricultural wares found from Jisan-Dong Tombs sites were chosen to be analys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ways of burial and findings of small-sized tools.

As a result, small-sized tools were found in this tomb site whereas no other areas found in these kind of tools.

When it comes to think about the small-sized tools, they were traditional way of burial and also normal agricultural tools were also buried together. This tradition in connection with Beakje seemed to be oriented from the strong influence of Dae-Gaya in the middle 5th century. After Dae-Gaya was dominated by Silla in the middle 6th century, small-sized tools were still buried but the entire numbers were fallen compared to the 5th century.

Key Words : Jisan-Dong Tombs, ways of burial and finding, iron agricultural wares, small-sized tools. Dae-Gaya

